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26	11. 02	11. 09
대 표 기 도	이예준 형제	이상호 목사	김새연 자매
성 경 봉 독	이예준 형제	김정규 형제	김새연 자매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온라인 헌금 예금주 변경 - 예금주를 “Jin Soon Chung”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4. Sommerzeit 해제 - 다음 주일(26일)부터 시행됩니다(한국과 8시간 시차)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 모입니다.

교우동정

환영	김혜민, 유지은 자매 - Universität Vechta 교환학생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10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34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윤미경 자매
성경봉독 Predigttext	삼상 24 : 8 - 11(구p450) (1.Samuel 24:8~11)	윤미경 자매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평안을 누리는 방법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지시를 따르는 용기

우리는 여름 야영에서 가끔 이런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눈가리개를 하고 옆에서 친구가 길을 일러 주는 말을 듣고 숲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앞에 나무가 있어! 발 앞에 통나무다. 뛰어넘어”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이 앞에 아무 것도 없다고 소리를 쳐도 발로 앞을 더듬으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기동 타격대가 출동하듯 요란스럽게 나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지만 모든 아이들은 한결같이 눈 가리개를 벗어던지고 앞을 보고 싶은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 이런 눈가리개를 하는 아이와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에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반문화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에 그분을 따르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그분의 요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싫습니다. 전 그냥 다시 제 껍질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안전하게 지내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 일어나 걸어가. 하나님은 신뢰할만한 분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고후5:7) 우리는 홀로 숲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잠3:6)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 Bill Hybels 목사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사울의 옷자락만 벤 다윗의 행동 기준에 대해 나눠보세요
2. 조금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나눠보세요.